

충북문화재단 설립 본격화

9일 첫 자문위원회

2009년 04월 08일 (수) 20:21:03

박재남 ✉ dynews1991@dynews.co.kr

9일 오후 충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충북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첫 자문위원회가 열린다.

위원회는 예총, 민예총, 문화원 등 문화예술단체와 일

반사회단체, 여성계, 학계 등 각계각층의 17명 인사로 구성돼 있으며 올 10월 발기인이 구성될 때 까지 운영된다.

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재단의 규모,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.

도는 5월부터 민간차원의 공론화 추진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재단설립 운영 지원조례를 제정하고, 하반기에 세부설립계획을 수립, 운영 예산 확보, 발기인 대회, 창립총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.

이어 내년 2월 재단법인 설립허가 후 법원등기를 거쳐 실질적인 재단설립을 6월 이전에 마치고 충북문화재단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.

재단조직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예술인의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기구로 구성되며, 이사회는 15인 이내(이사장, 대표이사 포함), 감사는 2인이다.

사무처 직원은 5~9명 선이며 사업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.

도는 재단이 설립되면 2012년까지 연간 3억원의 도비를 지원해 운영 재원을 마련해 주고, 이후에는 자립적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.

도 관계자는 “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도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 복지향상을 담당하게 돼 도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에서 소외된 지역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”고 말했다. <박재남>